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강국의 존엄과 국위가 빛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소식은 지금 온 지구천지를 세차게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 그 위대한 존함은 세계 주요언론들의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있으며 그에 대한 다함없는 애독과 호모, 경탄과 찬란의 목소리들은 지구 곳곳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김정은령도자의 현지도도를 두고 삼복칠행군, 눈보라강행군 등의 표현을 많이 쓰고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렬차강행군, 심야강행군, 연속강행군을 하였다. 지칠줄 모르고 외국방문러정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김정은령도자가 지닌 불같은 정열과 굳센 의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은 어느한 나라의 통신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방문로정을 날차별로, 지역별로, 대상별로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전한 글이다.

떠나가실 때에는 조용히 가시겠지만 이처럼 돌아오실 때에는 매번 지구천지를 뒤흔들시는 분, 가시는 곳,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의 특별한 존경과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광활한 대륙에 뚫어놓친 위인칭송열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대한 뚜렷한 중시이며 누리에 빛나는 강국조선의 국위, 강국인민의 존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로씨야연방에 대한 렬사적인 방문으로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시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이로써 세계는 국제정치정세흐름을 확고히 주도해나



는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때부로 실감하였으며 수령이 위대하면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해진다

는 렬사의 철리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렬사의 철리는 언제나 간단 명료하다.

그러나 이 길지 않은 한 문장속에 얼마나 깊고도 심오한 위대한 진리가 깃들어 있는것인가.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국가와 인민의 지위가 세계의 정점에 우뚝 솟아 빛나고 그 존엄은 누리에 떨쳐지고있다.

하루면 저 멀리 세기를 내

다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무쌍한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시종 미소를 뿌리시며 항상 만장을 주관하시는 출중함과 위풍당당한, 세계의 축을 둘러시는 힘의 발산과 같은 그 역센 발걸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인가.

그것은 인민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천민인민의 그 뜨거운 심장들과 빛나는 슬기, 순결무한 애국충성을 언제나 굳게 믿으신다.

그 모든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즐기차게 이끌어내시며 이 땅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강국을 건설하고계신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

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고계신다.

인민을 위해서는 너무도 뜨거우시고 너무도 극진하신 우리 원수님, 인민의 결에 서 계시기만 하여도, 수수한 인민의 말 한번 들으시기만 하여도 산악같은 힘을 얻으시고 어느때나 인민에게서 무한한 정과 고마움을 느끼시며 천진만고를 다 기울이면서 마음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는 그이시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그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공을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먼저 인민들에게 귀국인사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못견디고 그리워하고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그 무엇으로

세도 깨뜨릴수 없고 가를수 없는 이 행성의 가장 역세고 굳건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똠친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이 크나큰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에 피를 주고 숨결을 부어주며 소중히 안아키워주시는 절세위인의 그 거룩한 손길은 더없이 탁월하고 위대한것이며 그 심장은 천길 지심의 용암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그렇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인민의 령도자, 세계적인 정치가로 만민의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은 영원무궁도록 이 행성을 진감할것이며 그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창창한 미래로 나아가는 공화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존엄높은 국호는 영원히 인류에게 자주와 평화, 존엄과 영광의 상징으로 길이 불리우며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1년만 늘어도

교육이로 보는 국가의 밝은 미래

공화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아래 세대대들이 앞날의 기동감들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고있다.

이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것을 교육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렬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교육으로 광명한 미래를 앞겨오실 운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뜻깊은 그해에 21세기 주체교육이 나아가 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가는 방법보다는 교육이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식 교육혁명을 이룩하시려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은 11년전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주체101(2012)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범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나라는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고 세계가 들끓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이는 실로 대용단이었다. 교육기간을 12년만 늘어도

국가경제가 크게 장성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공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제를 높이는 사업을 많은 나라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이를 실현하자면 너무도 엄청난 투자가 들기때문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새 세기 교육건설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적이었고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만방에 떨치는 커다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회의에서 과학이 경제발전의 견인하는 기관차라면서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면시킴기 위하여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상정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이 땅에서처럼 국가적체력육성에 배움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있는 국민은 학생들은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온 세상에 소리가 자랑한다.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절풍같이 내달리는 강성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이명찬



1년만 늘어도

수필 같은 부름, 다른 모습

머칠전이었다. 구역의 조선옷점 종업원들이 우리 학교에 찾아왔다. 학교 교원들을 위해 수심벌의 치마저고리를 지어가고 온것이였다.

몇그레 대학을 졸업하고 초급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된지 몇달밖에 안되는 나에게도 산뜻한 치마저고리가 차례였다.

배 교원들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혀보며 몸에 꼭맞는가, 마음에 드는가를 세심히 물어보는 조선옷점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교육자들을 위하는 고마운 진정이 흐르고있었다.

후에 들으니 그들은 교원들을 더한히 내세우며 치마저고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천과 자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고 한벌한벌 손색없이 완성하는가 온갖 지혜를 기울였다고 한다. 가슴이 후련워왔다.

교단에 갖 선 평범한 신입교원이지만 어디 가나 《선생님》으로 떠받들려오고있는 나였다.

구역안의 상징물에서는 교원우대봉사일지에 내 이름을 올리고 생활필수품들을 집에까지 날라다준다. 편의봉사방에서도 선생님이 왔다고 우선적으로 봉사해주고 이웃들도 사소한 불편이 있을새라 저마끔 원심을 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면서 가슴 한가득 뜨거운 생각이 밀물처럼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교육자라는 그 부름 하나만으로 만사람의 존대를 받는 우리

맞은 교원상점이며 교원양복점이며, 케도천자의 교원차석들이 눈시울을 덥히며 안겨왔다.

지금도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은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꽃다발을 삼가 바쳤을 때 이 꽃다발은 내가 바를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아야 한다시며 교육자들에게 꽃다발을 도로 안겨주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진정 그날의 화복은 우리 교육자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의 세계를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학생들을 국가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는 교육자들을 혁명가로,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학을 찾으면 교원들에게 몸소 허리굽혀 인사하시는 우리 원수님.

섬분교와 최전연시대, 산골학교들에 자란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여서는 참다운 애국자들과 고결한 인성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라고 감탄을 내뿜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어머니.

참으로 그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어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듯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랴.

그렇다. 교육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사로 내세워주시고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있기에 우리가 선 교단은 이처럼 궁지로 빛나는것이이며 온 나라에 교육을 중시하고 교원들을 우대하는 기풍이 후덜덜 굵어지고있는것이다.

그날 나는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고 애국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되새기며 보답의 마음, 충정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었다.

서성구역 간재초급중학교 교원 리진향

운것이였다.

어찌 이뿐이라. 귀여운 딸애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장애자라고 하여 일반사회이 국가로부터 받는 산전산후휴가와는 다르게 임신 전 기간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신체장애자이때문이었다. 바로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사람들사이에 부여주는 사랑과 정이 그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며들었고 사회적책의 맨 앞자리에도 항상 그의 이름이 먼저 오르게 되었다.

집문턱도 넘기 어려워하던 그가 전국미술축전에서 한다하는 미술가들과 재능을 다투는 장엄한 미술가로 성장하고 축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돌봐주고 더 많이 위해주는 것이다. ...

신체상약점을 가지고있는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대우문제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장애자들이 어떤 사회적대우를 받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존엄과 인격, 나아가서는 운명과 관련된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있는가. 장애자녀성의 수기가 자자구구 다시 가슴에 안겨준다.

인상 좋고 인상후한 이웃들 속에서 정답게 불리워지던 《우리 3층집처녀》는 시집을 가서 술한 《헌정어머니》를속이 살았다.

도와줄 일이 없는가고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찾아오곤 하는 인민반장어머니, 상점에서 공물되는 상품을 라오는것은 물론 사소한것까지도 다 도맡아해주는 주민들의 인정은 진정 천어머니의 사랑과 정보다 더 뜨

는 우리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이 누리고있는 삶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당연한것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을 장애자녀성이 이야기한 《특별》이라는 말과 더불어 조명해볼수록 사회성원들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우리 국가와 제도의 은혜로움이 다시금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가.

정녕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와 방조, 국가적인 혜택속에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행사하듯 한 점 그늘없이 살아가고있는 우리

모든에게서조차 외면당하지 않은 안되는 피폐지역의 장애자들의 비참한 운명.

장애자들이 그 어디에 가거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겨 버린 인간적인 차별사라 속에서 거리를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범죄자들의 인신매매대상으로 되어 종당에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목에나고있는 곳이 바로 썩어빠진 피폐지역이다.

그렇다. 특별과 차별. 글자로 따지면 단 한 글자차이지만 두 사회적대우 장애자들의 국적인 인명의 차이가 비껴있는 이 두 단어를 나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존엄과 행복,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사람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어 북돋아주는 우리 나라, 따뜻한 덕과 정으로 인간세계를 아름다운 화원으로 꽃피우려는 우리 사회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강성애

특별과 차별

공화국의 장애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특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장애자들도 누리고있는 복된 삶의 대명사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장애자들이 누려가는 행복한 삶을 뜨거우면서 지켜볼수록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 피폐지역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버림받고있는 장애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진다.

언제인가 피폐지역 인신에서 사는 한 장애자가 자살을 결심하면서 남긴 유서가 있다. 《장애자는 필요없는 존재이다.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사회에서 장애자는 죽어야 한다.》

공화국의 장애자녀성의 목소리와 너무도 상반되는 목소리. 그의 유서와 같이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피폐지역사회에서는 장애자들이 사회의 《장애물》, 《인간오작품》, 《집중보조 못한 속물》로 취급되고있다. 그 어디에도 장애자들을 진정한 주인들의 인정을 진정 천어머니의 사랑과 정보다 더 뜨

게어주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

다

다